

#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02

Vol. 501



CALM

차분하게 준비하는 삶! 새해의 설렘을 가라앉히고  
다가올 미래를 꼼꼼히 설계해보자.



설렘 가득한 1월이 지나고 어느새 2월입니다. 연초에 세운 목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멀게는 노후를 바라보며 나의 계획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간 <교정>이 당신의 내일에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2월호 (통권 501호) 62권 2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04 **신년업무보고**  
2018 법무부 교정본부 중점추진 정책



06 **포토 이슈**  
SNS 홍보 우수 본부·소속기관 시상식



### Colorful Think

08 **Theme Column**  
2월의 컬러, SILVER  
당신의 노력이 반짝일 순간을 위하여



10 **Theme People**  
상처받은 마음을 연극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지다  
김영미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 대표



14 **Theme Talk**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교정·교화시설을 꿈꾸다  
대전교도소



18 **Theme Advice**  
시간이 필요하면 만들자, 시간 관리의 기술



### Cheerful Life

20 **교정은 행복을 신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알리자  
여주교도소



26 **아빠! 어디가?**  
초콜릿 & 쿠키 만들기 체험  
부산구치소 교사 이승용 가족



30 **어느 멋진 날**  
찰떡궁합, 부부교도관의 행복 나들이  
홍성교도소 교위 김부경·교위 이성덕



32 **패밀리 프로젝트**  
우리 아이 '좋은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34 **습관의 건강학**  
군살과의 이별을 선언하다



36 **히어로 코믹스**  
교정맨의 탄생



40 **교정 글마당**  
교위 정우성, 교사 신재욱



### Correction Story

44 **교정 포커스**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 '착하게 살자' 제작발표회



48 **교정 리포트**  
회복적 사법 관점의 소년수형자 교정처우(上)



54 **지상강좌**  
헌법 & 형사소송법



58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6 **교정 스타그램**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정행정 구현

01



경제적 취약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

- 입소 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인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 의료급여가 정지된 수용자의 자비 치료 비용에 예산지원
- 차상위계층 수용자가 1~2인실에 입원할 경우 상급병실로 예산지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석방 운영 방안 추진

- 2017년 9월부터 「가석방 운영 개선(안)」 지속 추진  
※ 2018년 가석방 출소율 28.3% 달성 목표
- 가석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추진

인권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교정행정 구현

0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지속 추진

- 사업추진이 용이한 수용동 증 · 개축 우선 추진으로 수용면적 확보
- 노후 교정시설 이전 · 신축 및 기관 신설 추진



수용자 의료처우  
환경 개선

- 원격의료센터 운영을 통한 의료처우 강화
- 미결수용자 전용 혈액투석실 설치 · 운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03



심리치료업무의  
전문성 강화

- 특정범죄자 심리치료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심리치료 효과성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체감도 제고
- 교정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사회복귀 지원업무의  
실효성 증진

- 불우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 다각화
- '희망센터' 증설 추진 등 수형자 사회복귀 적응 능력 강화



소통과 공감 문화의 조성

- 인터넷 화상접견 · 스마트접견 통합 운영
- 교정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 소재 개선
- 교정 홍보 콘텐츠 제작 · 홍보 강화

신년 업무보고

교정본부는 올해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중점추진 정책



# Photo Issue

교정분부는 선진화된 교정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 중이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달려온 이달의 교정 현장을 살펴보자.

## SNS 홍보 우수 본부·소속기관 시상식

지난 1월 16일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 SNS 홍보 우수 본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교정분부와 전주교도소가 각각 우수 본부와 교정기관으로 수상하게 되었으며 대표수상자와 우수공무원이 시상식에 참여하였다. 수상자에게는 법무부장관 상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졌다.



##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 프로그램 '착하게 살자' 제작 발표회

지난 1월 18일 법무부의 협조 아래 촬영된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 예능 '착하게 살자'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다. 수용자와 교도관 중심의 담장 안 이야기를 담아낸 사법 리얼리티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 이 프로그램의 모든 촬영은 법무부를 비롯한 전·현직 경찰, 법조인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루어졌으며 촬영 또한 여주교도소에서 진행되었다. 그 덕에 시청자에게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 수감 후 생활 등 국내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

※ 더 자세한 이야기는 44page '교정 포커스'에서 이어집니다.





매끈하게 빛 발하는 은색 색종이, 햇살에 대고 이리저리 비추어보면 모든 면이 아름답게 반짝 거린다. 우리가 '은색'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사실 색이 아니다. 표면에 작은 상처라도 내면 빛을 잃고 회색이 되는 것이 그 증거다. 빛나는 이 색의 정체는 고르게 코팅된 면이 반사하는 주변의 풍경이다.

# · SILVER

2월의 컬러

## 깨알 지식

### 'about SILVER'

리면이나 과자를 뜯으면 포장지 안쪽이 은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녹녹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3겹의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알루미늄박으로 처리한 면이다. 특히, 습기와 고온을 차단해 내용물이 녹녹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알루미늄박의 색이 도드라져 포장지 안쪽이 은색을 띠는 것이다.

## 당신의 노력이 반짝일 순간을 위하여

### 찬란한 순간을 위한 노력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조각가의 명언이 있다. “모든 것은 재료 안에 있었다. 나는 그저 작품에 필요 없는 부분을 건어냈을 뿐이다”라는 말이다. 무겁고 가치 없던 돌덩이는 이 겸손한 조각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감동을 자아내는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열망하는 마음은 노력을 만나 때때로 깜짝 놀랄만한 것들을 창조해낸다.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에 나가 객석에 멋지게 인사하는 꿈을 꾸었다”던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것처럼. 멋진 조각작품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피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한 반짝이는 순간, 그 뒤에는 빛나는 은색이 완성되는 과정이 그러하듯 아주 긴 시간 자신을 담금질해온 노력이 숨어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1월을 지나 2월, 불필요한 계획을 털어내고 선택된 목표에 집중해서 노력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

### 꿈과 닿아있는 고리, SILVER

꿈꾸는 것은 저마다 달라서 부나 명예를 꿈꾸는 사람도,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드는 삶을 바라는 사람도 있다. 은(銀)은 이 모든 꿈과 이어져 있다. 오래 전 금화와 함께 화폐로 군림했던 은화는 고액수표의 역할을 담당했던 금화와 달리 비교적 친근한 부의 상징이었다. 은으로 만든 꽃이라는 뜻의 은화(銀花)는 내술(奈率) 이상의 관리들만 머리 장식으로 사용이 허락된 명예의 꽃이기도 했으며, 독성에 반응해 색을 바꾸는 성질 덕분에 고급 식기로 밥상에 오른 역사 또한 길다. 과거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이 광물을 우리는 흔히 접하며 살아간다. 그 가치는 전보다 덜할지라도 어느 한 구석 패인 곳은 없는지 살피며 반짝이는 은빛을 만드는 노력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반들반들 잘 닦인 은의 광택은, 오늘 하루의 자신의 충실함을 비추어보기에 충분할 만큼 빛난다.

# 김영미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 대표  
이지아 사무국장

몸의 아픔 못지않게 마음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기 바빠 진짜 나를 돌아볼 시간은 부족하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삶은 서툰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여기 마음의 아픔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정시설을 비롯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연극치료를 담당해 온 이들은, 연극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뿐 아니라 치료사 역시 치유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한다.

## 교정시설 포함 심리적 지원 제공하는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자리 잡은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는 대안 치료로 활성화되고 있는 연극치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연극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단체로 2016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미 대표(이하 김 대표)는 10여 년 동안 연극치료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협회에 대하여 "임상연극 심리상담사 양성과정과 발달장애인극단 '네모와 세모'를 운영하고, 교정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을 포함한 개인·집단 대상 연극치료를 제공, 연극치료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는 '충분히 좋은 연극치료사 양성'을 목표로 2016년 6월부터 임상연극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을 진행 중이다. 임상연극심리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16주 과정이다. 김 대표는 "3단

계 과정을 마친 후 150시간 이상의 임상훈련, 20시간 이상의 개인분석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격 취득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며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2월 창단한 발달장애인극단 '네모와 세모'는 발달장애인들이 단원으로 참여해 연극을 만들고 있다. 극단 이름 '네모와 세모'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창단 공연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어 12월에는 극 중 극 형식의 창작극 '백설공주님 일어나세요'를 무대에 올렸다.

이와 함께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는 아동·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연극을 통한 개인·집단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정시설과 청소년쉼터,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등을 찾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연극치료도 포함된다. 연극치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상처받은  
마음을  
연극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지다





### 연극을 만들며 변화와 성장을 끌어내는 연극치료

연극치료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김 대표는 “연극치료는 발달장애, 심리적 상처의 회복,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바라는 이들이 치유의 뜻을 가지고 드라마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내담자들의 신경학적 발달을 돕고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 과정을 강화하고, 정서적 건강을 촉진한다”고 연극치료의 정의와 효과를 소개하였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연극 매체는 연극(Theatre)과 드라마(Drama)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연극(Theatre)이 공연에 집중한다면, 드라마(Drama)는 과정을 중시하는 극적 활동이다.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거나 역할연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김 대표는 “중세유럽의 축제에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억압되어 있던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에서 봉산탈춤을 추며 사회를 비판한 것처럼 극 안에서 역할을 연기하다 보면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그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김 대표와 이지아 사무국장은 연극치료가 낯선 취재진에게 종이테이프로 자신을 닮은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보는 손가락 인형 놀이를 보여주었다. 따라 해보니, 인형끼리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라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부담감이 덜했다. 짧은 시간만으로도 인형

놀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처럼 연극치료는 한 편의 연극을 공연하지 않더라도 친이나 인형, 가면 같은 소품을 활용해 짧은 상황극을 연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2013년부터 교정시설 수형자 대상 연극치료 진행

김 대표가 교정시설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2013년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연극치료를 담당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형자들을 만나며 이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 대표는 “연극치료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자신이 인식했지만 부인해왔던 문제들 그리고 인식하지 못한 아픔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상처를 어떻게 수용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치료사와 함께 고민한다”고 말하였다. 자기 내면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한다. 김 대표는 “수형자들 역시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많이 주저한다”며 “마음속 깊은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연극치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소개하였다. 이지아 사무국장은 수형자와의 연극치료를 회상하며 “수형자들이 처음에는 연극치료에 거부감을 갖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고민을 객관화하고, 먼저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등 연극치료 시간을 편하게 생각해 주셔서 좋았다”고 말하였다.

수형자들이 그룹을 이루어 연극치료에 참여하는 과정은 수형자 개인의 치유는 물론, 다른 수형자들을 이해하고 수형자들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는 효과가 있다.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고, 이 자체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 대표는 연극치료 과정에서 존속살인을 한 수형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를 고백했고, 이야기를 잘한 것인지 고민했던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김 대표는 “연극치료가 끝나갈 무렵 다른 수형자들이 그분에게 다가가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위로하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였다.

연극치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소할 힘을 길러주기도 한다. 출소 후의 상황을 설정한 극을 통해서 말이다. 수형자들은 ‘출소 후 편견으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때, ‘다 함께 술 한잔하려 찾아간 술집에서 시비가 생겼을 때’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된 상황극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나간다. 다툼을 피하는 요령 등 자신이 겪은 경험과 지혜를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도 연출된다. 수형자들은 이러한 상황극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당면할 문제 또는 당면한 문제를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연극을 하고 싶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연극 ‘굿닥터’를 지도하고, 지난해 11월 20일 선보였다. 이 사무국장은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할 날이 1년도 남지 않았던 한 수형자가 공연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한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출소를 앞두고 힘든 마음을 공연을 통해 발산하는 모습을 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 수형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치유 받아

김 대표는 ‘운디드 힐러(Wounded Healer)’, 즉 상처받은 치유자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존재다. 연극계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극치료에 관심을 가졌고, 연극치료를 계기로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연극치료를 통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기에 수형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극치료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김 대표와 이 사무국장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연극치료 할 때 치료사 자신도 치유 받는 느낌이 가장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 선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돕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자신의 선한 마음을 꺼내 가까이 서로를 챙기고, 위로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경쟁이 만연한 교도소 밖 일상에서도 그런 집단을 만날 기회는 쉽지 않은데 교정시설 연극치료를 통해 수형자들도, 치료사도 모두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18년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교정시설 연극치료는 수형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형자들을 위한 연극치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에서 연극치료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덧붙였다.



### 대전교도소

국내 최대 수용인원·최다 직원 수를 기록하는 대전교도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교정기관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외는 있는 법, 이곳 대전교도소는 그 규모 만큼이나 뛰어난 수용자 관리와 교정·교화, 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곳이었다.

#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교정·교화 시설을 꿈꾸다

### 글로벌 교정시설을 꿈꾸다

1919년 대전감옥으로 개칭한 대전교도소는 긴 세월 동안 민족사의 산증인 역할을 해온 곳이다. 1919년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부족한 수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일제가 세운 시설 중 하나였던 이곳은 유명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있던 곳으로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기관이기도 하다. 현대에 이르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면적과 시설, 수감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모습은 어떨까? 또 어떤 지향점을 꿈꾸고 있을까?

오늘 대전교도소에 대해 기탄없는 이야기를 들려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나이가 지긋한 선배직원부터 이곳에 근무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앳된 직원까지 환한 미소를 띤 채 자리에 앉았다.

"우리 대전교도소는 전국에서 수용자와 직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정기관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칫 흐트러지기 쉬



운 기관의 분위기나 원칙을 이끌어 가는 일이 중요한데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는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고생한 덕분이에요." 대전교도소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보안과 백인욱 교위의 설명이다. 이곳에 부임한 지 이제 5개월이 된 박노현 교감은 "대전교도소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특유의 활기와 에너지가 느껴져 참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보냈다.

###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는 곳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지만 '교정기관의 규모가 크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한 수용자들에게 맞는 관리와 교정·교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욱 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도소가 뛰어난 시스템과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를 자랑하는 것은 개

개인에 대한 성격이나 특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확인한다.

"대전교도소는 직원 개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을 존중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직원들의 성격이나 특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산이나 상담, 임상심리 등 각자의 능력이나 성격에 맞춰 근무지를 정해주시니까 업무능률도 매우 높아요."

이윤영 교감 역시 동의한다. "조직이 크기 때문에 업무가 세분화되어있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 간의 지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데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을까요? 새로 부임해 와도 적응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용기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용 교사 역시 "꼼꼼하고 치밀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신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동료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덧붙인다.



### 물 흐르는 듯한 소통과 협력

대전교도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과의 장종학 교도는 “지금 혈액투석실 병상에서 정기 투석을 받고 있는 수용자는 관리 차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용자 2명까지 총 20명입니다. 일반 병원 못지않은 시설에서 월·수·금요일에 혈액투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포함한 28명의 의료과 직원들이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며 자부심을 털어놓았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이 방대할 경우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소통의 문제다. 자칫 타인의 일에 무관심해지거나 자기 일밖에 보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전교도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급별 간담회는 물론, 교정발전협의 회도 개최한다. 부서별 부서장과의 대화, 교도관 회의 등은 모두 상하 좌우 물 흐르는 듯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온 제도다. “상급자를 대하기 어려워서 다들 말 못 하는 게 아니냐”고 문자 모두가 단호하게 부인한다. “업무지원이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모두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우리 소는 그런 이야기를 수용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건의로 관사를 한 개동 더 신축하고 변호인 접견실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직원 교육실도 마련해서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육이나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워선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수용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활발한 소통 분위기가 더 발전하는 대전교도소를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자 백인옥 교위가 조심스럽게 꼭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건네 왔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였지만 보안과에는 수용동, 작업장 등에서 수고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우리 교도소의 톱니바퀴가 매끄럽게 잘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지요.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지금의 대전교도소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전교도소 신경우 소장은 이곳을 일컬어 ‘대한민국 1번지 교도소’라고 지칭하였다. 오랜 전통 속에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대전교도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왜 이곳이 대한민국 1번지 교도소인지, 국내 최고·아시아 최고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 Theme Talk

### 준비하는 삶, 나를 말한다



교감 박노현

군대 운전병 시절에 사진 찍는 게 귀찮아서 대형면허를 따지 않았던 일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그때 일을 거슬삼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간의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최근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감 이윤영

저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였는데 일과 육아로 바쁘다 보니 다소 소홀하였어요.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퇴직 후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어 교육 자격증도 준비할 생각입니다.



교위 백인옥

저는 교도관으로 12년을 근무하였는데 그중 9년을 통제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년까지 일하고 싶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교사 이상욱

제 인생의 목표는 4개 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와 러시아어까지 습득했는데 다음 목표로 스페인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가족이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위해 수입의 10%도 따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까지 익힌다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될 테니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사 이강용

수용기록계에 근무하다 보니 법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용자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 자신의 출소 시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담하는데, 궁금증을 해소한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수용자들이 담당자를 믿고 따르도록 그래서 수용 생활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관련 사항을 꾸준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도 장종학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서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늘 사람을 마주하는데 말주변이 부족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꾸준히 독서하며 생각의 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 대전의 가 볼만한 곳

### 장태산자연휴양림

대전광역시 장안동에 자리 잡고 있는 장태산자연휴양림은 메타세콰이어 나무숲길로 유명한 곳이다. 연인은 물론, 가족단위 삼림욕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며 대전광역시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잘 알려져 있다. 잣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독일 가문비나무가 무성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호수와 형제바위, 펜션, 산책하다가 쉬어갈 수 있는 벤치 등 자연과 편의시설이 잘 어우러져 있다. 바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더 없이 좋고 미세먼지로 답답할 때 가슴을 뽕 뚫어주는 곳이기도 하다.



### 둔산동 맛집거리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동은 대전 지역의 행정·금융·유통 중심지로서 가장 변화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유통인구가 많고 맛집들이 모여 있다. 퇴근 후 술 한잔 하려는 직장인들과 젊은 층들이 몰리는 둔산동 거리는 싱싱한 해산물, 고기, 초밥, 회, 스파게티 등 입맛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당들이 존재한다. 특히 곱창은 오래도록 사랑 받아온 이 지역의 단골메뉴로 외지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 시간이 필요하면 만들자, 시간 관리의 기술



## 자산보다 귀한 시간 관리법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디서 만드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미하엘 엔데의 동화 <모모>를 본 적이 있다면 작품에 등장하는 시간도둑을 기억할 것이다. 작품에서는 악의 무리가 시간을 훔쳐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SNS 활동, 계획에 없던 업무를 넘겨받는 일처럼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본의 사업가 고도 도키오는 <시간 관리의 스킬>이라는 책에 시간 관리 노하우를 가득 담아 출간했다.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던 그는 연구 끝에 '시간을 쓰는 방법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는 출퇴근 수단을 전

철에서 자전거로 바꿔 만원 전철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며 한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건강관리가 수익창출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로 한다. 늘 시간에 쫓기고, 하루 종일 바쁘게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회의가 든다면 자신의 시간 활용법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 그 첫걸음으로 소개할 것은 내 안의 시간도둑 '에스맨'에 대한 것이다.

## 내 시간을 찾아주는 'NO'

밀린 업무를 전부 처리한 다음날,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여전히 정신 없는 하루가 이어진다. 어제 상상했던 하루와 너무 다른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뜻밖에도 거절을 어려워하는 성격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나중에 후회할지

야심 차게 세웠던 1월의 목표가 흐지부지해질 무렵, 자신에게 대법직한 최고의 핑곗거리가 있으니 바로 '요즘 너무 바쁘잖아'라는 것이다. 가만히 되짚어보자.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바빴을까? 미처 목표를 이룰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면 시간을 창조하는 시간 관리의 기술을 익혀보자.

# Time management

늘 시간에 쫓기고,  
하루 종일 바쁘게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회의가  
든다면 자신의 시간 활용법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



참고 : <독일 사람들의 시간관리법>, 로타르 J. 자이베르트 著  
<시간 관리 스킬>, 고도 토키오 著

라도 일단은 "네"라고 답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거절 후에 찾아올 갈등에 대한 두려움,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마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워싱턴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더 많이 사랑받거나 집단으로부터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았다. 도리어 무작정 "YES"만 외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우습게 여겨지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고 "NO"를 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람과 이상을 견어낸 후 정확히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나면,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예상 소요시간을 근사치로 계산할 수 있어 판단이 쉬워진다. 또, 거절의 이유가 자신

의 능력 탓인지 좋고 싫음에 기반을 둔 기분 탓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판단이 섰다면 거절의 의사를 밝힐 때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자. 민감한 상황인 만큼 자칫 무례하게 비칠 만한 단어는 제외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간단하고 분명하게 거절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동시에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면 더 좋다. "굉장히 난처하시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계를 거쳤음에도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정확한 선을 그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씨가 그 분야 전문가예요, 도움을 청해보세요"라거나 "내일 점심 식사 후 한 시간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와 같이 말이다. 적절한 "No" 사용법으로 한층 여유로운 2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착하게 살자, 바르게 알리자

여주교도소 올스타 출동!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교정기관과 교도관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또 있었을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폭발적인 인기에 이어 사법 리얼리티 <착하게 살자>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국내 교정기관과 교도관에 대해 제대로 알리겠다는 책임감으로 뚝뚝 뚝친 여주교도소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 <착하게 살자> 저희 소에서 찍었습니다

2001년 7월 수원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으로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그리고 두 달 뒤 9월, 수원교도소는 여주교도소로 그 이름을 바꾸었고, 1,600명의 수용자와 350여 명의 직원이 함께 지내는 곳이 되었다. 규모가 적당한 덕분에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소가 크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동료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주교도소는 직원들끼리 잘 알고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의 협조도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총무과의 송재훈 교사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설명하였다. 유난히 좋은 분위기 때문일까? 여주교도소는 JTBC <착하게 살자>의 배경으로 선정되었다. 여주교도소에 촬영 협조 공문이 내려온 날 소는 꽤나 슬렁였다고 한다. ‘교도소는 그동안 배일에 싸인 정부 기관이었는데, TV를 통해 업무 과정이 공개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교정 공무원의 업무와 소의 모습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까?’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민하던 것도 잠시, 촬영은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어느새 TV에 여주교도소가 등장하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방송 후 인터넷 댓글을 보니 “재미있다”, “교도소가 저런 일을 하는 곳 이구나”같이 우호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덕분에 그때야 모두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촬영 내내 교도관들의 신경은 한껏 곤두서있었다.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시설 안에 방송 장비와 대규모 인원이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심지어 직접 작품에 출연한 교도관까지 있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교정은 행복을 신고’팀이 50판의 피자와 콜라를 들고 여주교도소를 찾았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두 함께하니 이 아니 좋을 소나

모두가 함께 어울려 간식을 권하며 오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피자를 따로 챙겨놓는 여주교도소 직원들의 분위기가 살갑고 따뜻하다. 앞서 송재훈 교사가 자랑했던 이유를 알만하다. 이유순 교위에게 “연기가 일품이더라”라고 인사를 건네자 뜻밖의 답이 돌아온다. “연기가 아니라 생활이었다”는 것이다. 입소실과 변호인접견실에 등장한 이유순 교위는 “촬영은 6시간이나 걸렸는데, 막상 방송에서는 얼마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하는 한편, “실제로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출연 전의 고민에 대해 밝히기도 하였다.

“야간근무자로 나와 순찰만 들었다”는 원종찬 교사는 극 중 수용자들에게 외친 “이불 언제 꺼는지 알죠?”라는 대사를 직접 들려주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 살짝 부담되었다는 후일담도 털어놓았다. 채병준 교도는 뜻밖에도 방송이 나간 뒤 연수원 동기들과 친구들에게 정말 연락을 많이 받았으며 행복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촬영을 하면서 김보성 씨가 한 말입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사회에서 그 노고를 알아주는데 교도관들의 노고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넘쳐나는 이야기 속에서 빠른 속도로 피자가 사라지고 이어져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이 다가왔다. 오늘 게임은 원반

가장자리에 달린 8개의 줄을 팀원이 하나씩 잡고 원반 위에서 공을 툭툭 튕겨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게임은 8명씩 구성된 4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겨루는 형식이다. 본 게임 전에 연습시간이 주어졌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어려운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8명이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지 않을만한 높이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저 흥미진진, 모두가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가장 약체로 예측되었던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보였다. 주어진 상품은 패스트푸드 상품권이다. 우승팀의 누군가가 “사람이 8명인데 7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어찌느냐”고 외쳐 모두가 콩 자루 터진 듯 와르르 웃음을 토해 놓기도 하였다.

2017년 겨울부터 2018년 봄까지 대한민국에는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열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그동안 왜곡되어 보여져왔던 교정시설과 교도관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 실상이 보다 정확히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엄격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교화시켜 사회로 내보내는 이들을 지켜보는 사회의 시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교정기관 홍보의 선봉장에 나선 여주교도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 덕분에 가능했던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또, “오늘이 여러분께 휴식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은 여주교도소의 김성열 총무과장은 추운 날씨에 멀리서 찾아와준 일에 감사를 전하며, “촬영 때도 날씨가 추워 직원들이 몹시 고생했는데, 앞으로 방영될 프로그램에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교정기관과 교도관의 현실을 바르게 알리는 <착하게 살자>가 잘 되길 바라는 모두의 뜨거운 진심이 서로에게 전해지니 직원들 모두가 우렁찬 박수를 보내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간식 타임이 시작되었다. 과마다 나름대로 간식을 즐겨왔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피자를 나눠 먹으니 그 즐거움이 각별하다. 삼삼오오 이야기와 웃음이 넘쳐나는 와중에 가장 화제를 모은 사람들은 역시 <착하게 살자>에 등장한 교도관들이다.

정의형 교위는 “저는 기결 이후의 수용동 근무자로 등장했습니다. 출연제의를 받고 우리 교정기관을 좀 정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니, 방송국에서도 교정공무원의 일을 명확하게 알리려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어느 배우가 제일 재밌었냐는 질문에 정의형 교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김보성 씨”라고 답해 주변 직원들로부터 큰 웃음을 자아냈다. 아마도 동의의 웃음이라.

### 교도관들, 배우가 되다

회의실에 놓인 탁자와 의자를 촘촘하게 정리해 대형을 갖추고 ‘교정은 행복을 신고’의 상징인 빨간 현수막을 걸자 하나 둘 등장한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그간 책자에서만 보던 풍경을 직접 본 놀라움 탓이다.

오늘 모인 인원은 대략 40여 명, 준비된 피자과 콜라는 총 50세트다. 업무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도 간식을 챙길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하였다. 그동안 팀 단위로 진행했던 ‘교정은 행복을 신고’와 달리 이번에는 전체 직원에게 공지를 띄워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모두 착석하자 먼저 본부 교정기획과의 윤종웅 교위가 마이크를 잡았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를 통해 여러분을 뵈게 되어 반갑다”라고 운을 뗀 윤종웅 교위는 작년 11월 이곳에서 진행된 <착하게 살자>의 촬영이 여주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





### 교도 채병준

교도관이라고 하면 두렵거나 아주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모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편견 없이 봐주십시오.



### 교정관 김성열

우리 교정에 대해 국민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방송 중인 프로그램 <착하게 살자>를 통해 우리 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정확히 알려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교위 정의형

교정공무원들은 교도소에서 엄격히 법집행을 하되 수용자를 가족처럼 여기고 두 번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정·교화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 교감 석길영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교도소라고 하면 '무섭다', '혐오스럽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흉포한 범죄자가 아닌, 잠깐의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가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곳이라는 시선으로 너그럽게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팅팅팅!

### 교사 김기욱

교정기관이나 교도관들을 아주 딱딱하게 보고 군대식 서열 조직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들입니다. 담담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 송재훈

미디어 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교도관은 수용자들에게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교도소가 배경인 드라마가 히트를 치더니 이번에는 실제 교도소 생활을 보여주는 사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채로 출발하였지만, 교정기관과 교도관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다. 2018년 국민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사랑받는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주교도소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우리 가족 초콜릿&쿠키 만들기 체험

부산구치소 교사 이승용 가족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연일 한파가 이어지던 주말 부산구치소 이승용 교사(33)는 아내 허정미(34) 씨, 첫째 형준이(7), 둘째 형우(5)와 나들이 준비가 한창이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오늘은 무엇을 같이 해볼까?”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이승용 교사는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수제 초콜릿 만들기에 도전하였다. 그 달콤한 현장을 따라나서 보자.

### 고사리손에서 싹튼 사랑의 쿠키

점심을 배불리 먹고 출발한 탓인지 다섯 살 형우는 초콜릿 공방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곤히 잠이 들었다. 엄마 품에서 단잠에 빠진 형우를 깨우기가 미안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수업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아이가 거짓말처럼 반짝 눈을 뜬다. 과자의 집을 떠올리게 하는 초콜릿 공방에서 스며 나오는 달콤한 향기를 맡은 덕분인가보다. 마법이 풀린 듯 형우가 잠에서 깨자 본격적으로 초콜릿 공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형준이와 동생 형우가 사이 좋게 줄을 서서 손을 씻고 아무렇게 소맷자락을 걷어 올리고는 선생님이 쿠키 반죽을 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뭇 진지한 얼굴이다.

첫째 형준이는 아빠와, 둘째 형우는 엄마와 한 팀이 되어 사랑의 쿠키 만들기를 시작한다. 덩어리 모양의 반죽을 밀대로 쪽쪽 밀어 고른 모양으로 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두 아이는 어쩌나 열중했는지 반죽에 묻혀야 하는 밀가루가 몸 군데군데 묻는지도 모르고 열심이다. 드디어 반죽이 아이들의 얼굴보다 커다래지고 모양 틀을 고를 차례다. 작업대에는 아이들의 마음에 쏙 드는 여러 가지 모양 틀이 늘어서 있다. 아이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엄마는 “형우, 꽃 모양 해볼까?” “곰돌이 모양도 있네?”라며 형우의 놀이 포인트를 콕콕 짚어줌으로써 즐거운 베이킹 타임을 리드한다.

반면, 첫째 형준이와 아빠는 무뚝뚝한 부산 사나이 스타일이다. 두 마디 이상 나누는 일 없이 묵묵하게 각자의 작업에 몰두한 모습이다. 작업하는 모습도 결과물도 제각각이지만, 어느 순간 함께 웃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은 단란한 가족 그 자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초콜릿 컴퍼니의 담장을 넘나들었고 그 옆을 지키는 이승용 교사와 아내 허정미 씨 부부가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바라보는 사람마저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옥신각신 “내가 할 거야, 이것도 해볼래, 이진 뭐지?” 하며 연신 쾌활하게 밀고 찌고 꾸미고 굽는 작업을 거치고 나니 이승용 교사 가족만큼 따뜻하고 예쁜 쿠키가 완성됐다. 맛 또한 일품이었던지 완성된 쿠키를 맛보는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다.



**아내에게 바치는 생애 첫 수제 초콜릿**

프로의 느낌을 풍기며 쿠키 만들기를 따라하던 아내 허정미 씨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아이가 어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육아 출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연히 늘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늦은 시간 퇴근하는 이승용 교사보다 아내가 육아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그 마음 쓰임과 고생스러움을 알기에 이승용 교사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그래서 주말이면 늘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곳을 가고,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해주려 노력한다. 오늘은 특별히 그간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초콜릿에 담아보기로 하였다. 이승용 교사는 세심한 성격이라 화이트데이에는 잊지 않고 초콜릿을 사다 주었지만, 직접 만든 초콜릿은 처음이라고 한다. 허정미 씨는 “연애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라며 기대를 드러낸다. 생애 첫 초콜릿 만들기에 도전하는 이승용 교사 역시 설레기는 마찬가지다. 서툴지만 열심히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눈에서도 애정이 묻어난다.

이승용 교사와 허정미 씨는 ‘얼그레이 파베’, ‘스트로베리 봉봉’, ‘오 쇼콜라’를 만들기로 하였다. 아이들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조심조심 템퍼링 한 초콜릿



릿에 가나슈를 채워 넣고 색이 고운 딸기 파우더에 굴리자 스트로베리 봉봉 하나가 완성된다. 하나, 하나 정성 반 떨림 반으로 만드는 이승용 교사와 달리 수월하게 작업 중인 아내는 틈틈이 남편의 모습을 감상하는 여유까지 보인다. 그렇게 ‘스트로베리 봉봉’과 ‘오 쇼콜라’를 만들고 굳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얼그레이 파베’ 작업이 시작되었다. 얼그레이 잎과 생크림, 초콜릿을 섞어 사각틀에 부은 후 미리 굳혀 두었다. 적당히 굳은 얼그레이 초콜릿을 일정한 간격으로 예쁘게 잘라 카카오 파우더에 굴리거나 무늬가 새겨진 초콜릿 전사지를 붙여 꾸미는 작업이 이어진다. 마지막까지 아내에게 선물할 생각으로 꼼꼼히 작업하던 이승용 교사는 완성된 생애 첫 수제 초콜릿을 뿌듯한 얼굴로 바라본다. 지켜보던 아내에게까지 그 웃음이 번진다.



**건강한 웃음으로 에너지가 솟는 가족**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가족.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웃어 주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며 서로 배려하고 챙겨 주는 모습이 부러울 만큼 보기 좋았다. 이승용 교사는 “아직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조금 더 자라면 학업에 대한 욕심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다만, 아이들이 바빠져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보여 주고 체험할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그의 바람이다.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이다. 지금처럼 건강한 웃음을 간직한 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낸다면, 가족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며 웃는 이승용 가족은 다음 주 주말에도, 그다음 주 주말에도 어김없이 함께 외출해 아직 못다 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초콜릿컴퍼니  
CHOCOLATE COMPANY**

스위스산 100% 리얼 카카오 버터와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 정성껏 아틀리에에서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14  
삼정그린코아 B108호

홈페이지 : chocolate.mtsolution.co.kr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3월호에는 ‘춘천이가새농장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찰떡궁합, 부부교도관의 행복 나들이

〈홍성교도소〉 보안과 교위 김부경·사회복지과 교위 이성덕

홍성교도소 내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있다. 바로 부부 교도관 김부경 교위와 이성덕 교위다. 두 사람은 홍성교도소에서 만나 사랑의 결실로 부부가 되었다. 남편 이성덕 교위는 결혼생활 중 근무시간이 달라 아내와 데이트를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며, '어느 멋진 날'의 문을 두드려왔다. 그 행복한 나들이로 함께 떠나보자.

모처럼 나서는 나들이에 두 사람의 낮빛이 밝다. “오랜만의 나들이가 즐거우신가 봐요?”라고 물으니 남편 이성덕 교위는 “당연하죠”라며 웃는다. 아내 김부경 교위도 역시 “오랜만이죠, 정말”이라며 끄덕인다. ‘직장에서 매일 마주칠 텐데, 왜 그럴까?’ 의문을 품은 순간, 이성덕 교위가 답을 준다.

“부서가 달라서 저는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아내는 야간근무를 해요. 아내는 어제 야간근무하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단잠을 자는 동안 아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오네요. (웃음)” 둘의 서로 다른 근무시간은 ‘어느 멋진 날’ 신청 이유이기도 하다. 이 코너가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청했다가, 둘의 데이트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반가웠다고 속내를 밝힌다. 영화관람 전 두 사람은 예약된 음식점에 들러 든든히 식사부터 하였다. 이성덕 교위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교정>팀과 궁리 끝에 돈가스 집을 예약했었다. 다행히 아내도 마음에 들었는지 즐거운 얼굴이다. 식사 중에는 슬며시 두 사람의 연애 시절 이야기가 새어 나온다.

남편은 “운명이었어요, 당시 총무과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업무 요청을 하러 갔다가 처음 만난 순간 ‘아, 이 사람은 내 여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한다. 아내는 “직장에서는 제가 선배지만, 남편이 사회경험이 많아서 배울 점이 많았죠”라며 든든한 남편을 자랑한다. 식사 후에는 인근 홍주성 산책이 이어졌다.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좋은 일일까’를 논하던 두 사람은 장점으로 서로의 일이 고됨을 잘 알기에 보듬어 줄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는 월급체계를 뻔히 알고 있어 비상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 같은 직장 동료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 중이다. 김부경 교위는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입소하는 수용자와 더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하여 심리상담과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성덕 교위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독일 유학 중 서유럽에서 사회문제와 정신적 근본 철학을 공부하였다. 서로의 보폭에 맞춰 나란히 걸다 보니 어느새 극장 앞이다. 두 사람은 “낮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극장까지 오니 연애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두 사람, 아내와 남편으로, 또 직장동료로서 오늘 한층 더 깊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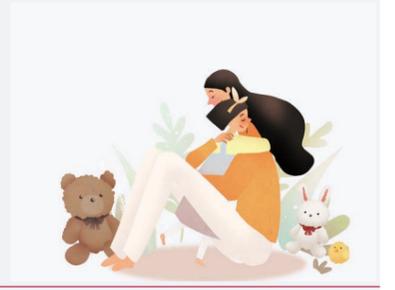


“오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 이성덕 교위

오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도 좋은데, 저희의 나들이를 옆에서 사진으로 남겨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를 않네요. 그동안 서로 일이 바쁜 탓에 대화도 많이 못 하고 단조롭게 생활했었는데, 기분전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멋진 날**은 교정인 여러분께 문화관광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동문외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연극이 있다면 지금 이레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 correced2015@naver.com



### 엄마 아빠와 함께 기르는 사회성

1. 아이의 잘못을 대할 때 훈계보다 눈높이를 맞추고 친구의 입장에서 대화하도록 한다.
2. 가정에서 혹은 외출 중 직접·간접 체험하는 사례를 통해 아이가 생각할 만한 수준의 질문을 던진다.  
(예시 : 친구들이 인형을 먼저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는데, 사이 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3. 아이의 행동이나 말투를 관찰하고 지적하는 대신 꾸준히 대화를 나누어 스스로 개선 방법을 깨닫도록 유도한다.
4. 친구를 만났을 때, 뒷사람을 만났을 때, 고마움의 표현, 미안함의 표현, 친근감의 표현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사를 알려준다.
5.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난도를 높여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해결 과정을 차분히 기다려준다.
6. 부모 등 가족 구성원과 대화 시 정확한 단어 사용을 통해 아이가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 Family Project

# 우리 아이 '좋은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매년 2월은 새 학기를 앞두고 아이보다 부모가 더 긴장하는 시기다.

아이가 교과과정에 따라갈 만한 학습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 괜찮을까?

사회성은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원만하게 어울리는 능력이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닐 무렵을 시작으로 평생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 셈이다. 특히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사회성은 부모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화두가 되었다. 과거 대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구성으로 꼽히던 시대에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화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부모와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성이 많아진 후로 입학 전까지는 사회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졌다. 필연적으로, 입학 전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사회에 발을 디딘 아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과 규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집단 내에서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학교를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사회성은 수학이나 영어처럼 한 방면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기에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 입학 전 꼭 길러야 할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

집단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공감 능력'이다. 친구의 슬픔이나 기쁨 혹은 친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덕목은 '자기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친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도 전달했다면, 함께 어려움을 헤쳐갈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해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 시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도 배려하며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이기적인 아이로 인식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 성취와 함께 집단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을 이끌어갈 힘, '리더십'까지 갖출 수 있다면 사회성 발달의 모든 덕목이 준비된 것으로 여긴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위에 소개된 여섯 가지 방법을 통해 아이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추천한다.



## 나이 탓? 습관 탓! 군살과의 이별을 선언하다

30대에 들어선 어느 날, 문득 내 몸에서 낯선 감각이 느껴질 때가 있다. 배, 팔, 옆구리 뒤쪽 등 유독 빼기 어려운 곳들만 골라서 살이 찌기 시작한 느낌 말이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들던 나잇살인가'라며 체념하기는 아직 이르다. 군살의 원인은 나이가 아닌 습관 탓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 나이드는 우리 몸,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이 들며 몸 구석구석 자리 잡은 군살은 그간 좋지 못한 생활습관을 유지해 왔다는 증거다.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 주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듯이 '나잇살'이라는 단어에도 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할 것에 대한 경각심이 서려있는 셈이다.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군살에는 부위별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결국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눈을 깜빡이고, 걷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총량이다. 성장기는 물론이고 혈기왕성한 20대 초반까지는 기초대사량이 높다. 많은 양을 먹고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 생활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것이 없어 살이 찌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초대사량은 푹 떨어져 먹는 양은 되려 줄었는데도 살이 찌는 역울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20대 중반에 보통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활동량이 현격히 떨어진다 는 것도 군살이 붙는 큰 이유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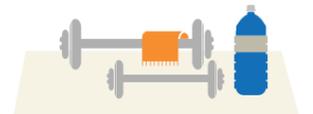
### 내 몸에 군살을 불러온 습관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종일 앉아있느라 활동량이 거의 없는 생활패턴이다. 출퇴근길 짧은 거리라도 걸어서 이동하는 구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 걷는 동안에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적절히 팔을 휘두르며 걸어야 칼로리 소모가 늘고 팔에 붙는 군살이 제거된다. 평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사람은 좌우 골반의 높이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 또한 군살의 원인이 된다. 틀어진 골반은 어깨와 무릎의 좌우비대칭을 불러와 우리 몸이 지방을 보내 억지로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역시 군살 예방법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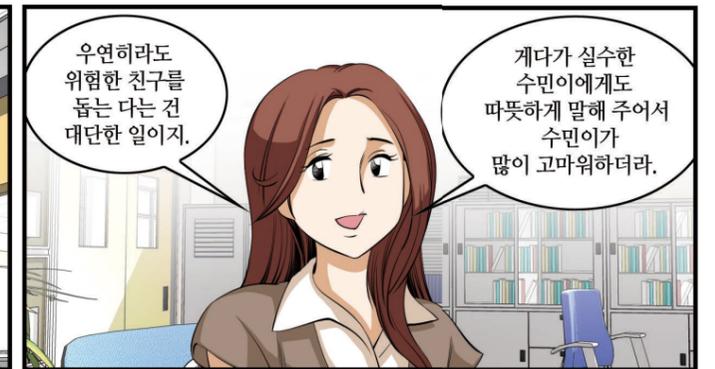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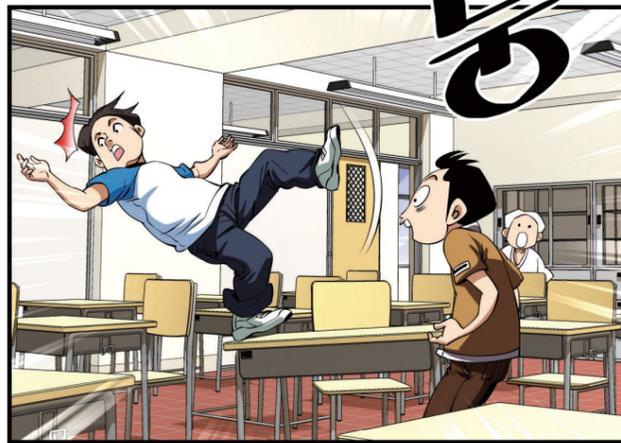
식습관도 중요하다.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그 중 하나인데,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소화를 더디게 할 수 있으니 식사 후 한 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으며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차(茶)나 커피 대신 생수를 가까이 하는 편이 좋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앉드려서 간식을 먹거나 음주,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다만,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기 어렵다면 술자리는 식사를 든든히 한 후에 갖고, 맛있는 음식은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방법을 추천한다.

### 나잇살 대신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7가지 습관

- 자세는 늘 바르게, 다리 꼬는 습관은 버리자.
- 걷기의 생활화, 손은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 간단한 음식이라도 반드시 앉아서 먹는다.
- 하루 1리터 이상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 뱃살의 주범이 되는 술은 되도록 식후에 마신다.
- 스트레스 해소에는 폭식 대신 음미하며 먹기를 실천한다.
- 일과를 마친 후에는 꼭 스트레칭 후 잠자리에 든다.



# 교정생의 탄생





# 4차 산업혁명과 교정

최근 아마존에서는 'Alexa(알렉사)'라는 인공지능형 상품을 판매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인공지능형 상품 알렉사는 집안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를 들면 "알렉사,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물으면 인터넷 검색으로 날씨를 이야기해주고, 오늘의 뉴스를 물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조회 수가 많은 순서로 뉴스를 읽어준다. 게다가 "알렉사, 거실 불 꺼주고 자동차 시동 걸어줘"라고 명령하면 자동으로 불을 끄고 시동도 걸어 준다. 만약 이런 상품이 눈앞에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사고 싶을 것 같다. 다행히도 아직 아마존의 인공지능형 상품은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고, 알렉사도 한국어 음성 명령과 반응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계에도 인공지능형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AI닥터 'Watson(왓슨)'이다. 왓슨은 IBM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데 암 치료에 대한 왓슨의 진단이 전문의와 90% 이상 일치되어 주목을 받았다. 작년 말 가천대 길병원 진료 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치료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아직 암 진단은 어렵지만 효과적인 진료 방법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두 번째로 부산대 병원에서 도입하였고 충남대학병원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인공지능의 확장성은 또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바로 IoT 기술(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뜻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흔히 쓰이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 중 스스로 주변 환경이나 도로 상태를 읽어내고, 인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판단한다. 그리고 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각 부속에 명령을 전달하고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정말 영리한 녀석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 인공지능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빅 데이터(Big Data)다. 우리의 생활 속 깊이 파고드는 인공지능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삶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한 결과물들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딥 러닝(Deep learning)하여 태어난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의 소중한 삶을 우리는 가치 있게 보지 못 하는데, 오히려 기계들이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삶의 변화와 다양한 가치를 요구할 것이다. 심지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미래에 사라지게 될 직업군이 발표되고, 해당 직업군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사라질 미래를 두려워했다. 당장 '왓슨'이 등장하자 전문의의 정확도가 왓슨과 저울질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정도 사라지는 직업군이 될까? 참고로 하늘 위의 산업혁명인 드론산업의 등장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위협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산업이 탱크산업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값싼 드론의 기동력이 고비용의 탱크를 잡는데 개발되어서 일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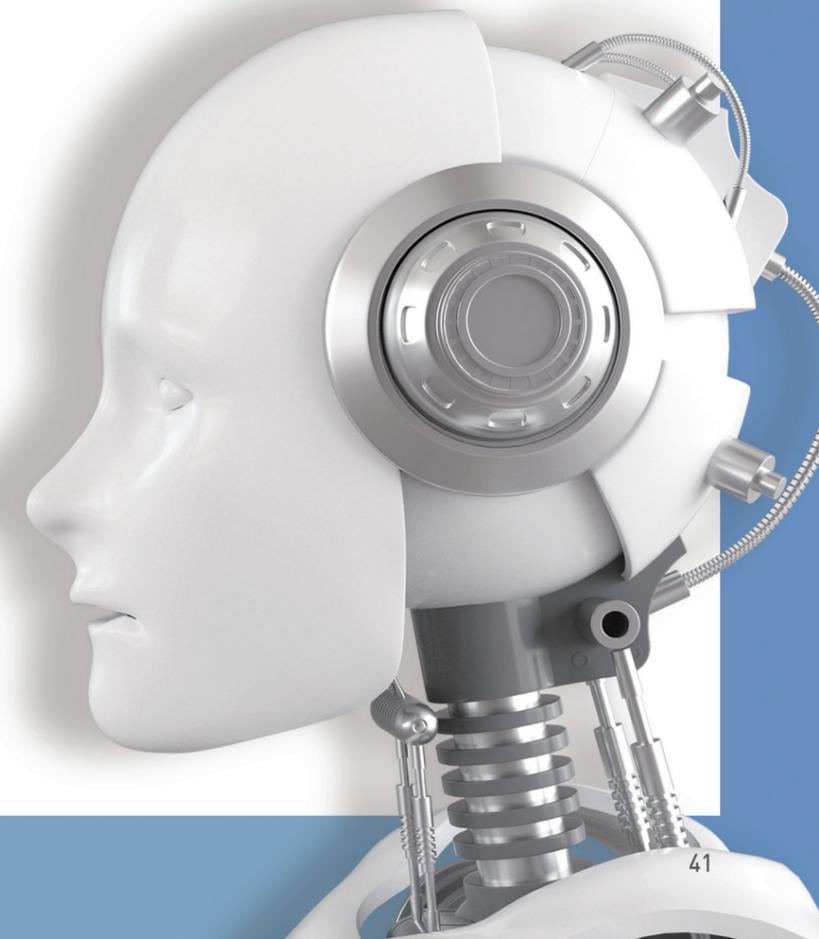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문화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큰딸이 갑자기 "아빠, 키오스크가 뭐야?"라고 묻는 것이다. 난생처음 듣는 단어였다. "어디에 쓰여 있어?"라고 문자 문화원 입구를 가리켰다. 그곳을 자세히 보니 안내데스크처럼 생긴 곳에 대형 터치스크린이 있고, '키오스크'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무인종합정보안내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다. 터치스크린에는 간단한 안내에서부터 세밀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덕분에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공연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단정한 용모의 직원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서 있을 자리였는데 말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속화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키오스크도 없어지고, 인간 같은 로봇이 대신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상 방관해서도 안 될 것 같다. 만약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우리를 진화하여야 하지 않을까? 요즘 수용자는 과거 수용자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수용 생활에 관한 정보만 보고도 알 수 있다. 내 업무를 나보다 더 훤히 알고 있고, 다른 업무까지도 잘 알고 있을뿐더러 공유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도관보다 더 교도관 같은 수용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통제하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보라미시스템이 있지 않은가? 보라미시스템에는 방대하고 무궁무진한 수용정보가 가득 담겨져 있다. 어떤 경로로 수용하게 되었고, 어떤 교육과, 어떤 직업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빅 데이터가 지난 시간동안 엄청나게 쌓이고 쌓여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그 빅 데이터를 쓸모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몫이 오롯이 우리 교정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데이터 분석가도 없고 관련된 전문 인력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끊임 없이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렉사나 왓슨 같은 교정형 인공지능이 탄생하지 않을까?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미래의 교정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는 인간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마치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준비하고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 겨울 산행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마음먹은 일이 형편어질 때가 많다. 특히 날씨처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어릴 적 손꼽아 기다리던 소풍 날 아침,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하루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얼마 전 아침부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비 때문이었을까? 기분마저 내려앉아 터벅터벅 길을 걷다 그만 발을 헛디더 발목을 빼고 말았다. 퉁퉁 부은 발을 보면서 오늘은 운수가 사납다고 생각했다. 발목 뻠데는 침이 제일이다라는 말이 떠올라 한방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침을 맞고 잠시 누워 저주파 치료를 받는데 무료함이 밀려왔다. 문득 사진이나 찍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떴다. 정말 운수 사나운 날이었다. 하는 수 없이 지난 사진을 정리하는데 이런 걸 언제 찍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진이 있었고, 기억조차 없는 사진들도 있었다. 한 장 한 장 정리하다 아주 오래전 찍은 사진 한 장에서 나의 시간은 멈추어버렸다. 그 사진은 나의 타임머신이 되어 3년 전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3년 전 겨울이었다. 그날도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였는데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초등학교 동창이던 친구인데 “잘 지내지?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대학 시절 눈 오면 같이 겨울 산행 갔던 것 기억나

냐? 오랜만에 겨울 산행 같이 안 갈래?”라는 문자 메시지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잊고 지내다 우연히 같은 대학을 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눈 오는 어느 날 산에서 만나게 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눈만 오면 같이 산에 오르는 사이가 된 것이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언제 갈까?”라고 답장을 보냈고, 얼마 후 우리는 마치 대학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산 아래서 만나게 되었다.

당시 우리는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였고 대한민국은 IMF라는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 탓에 취업이 어려워졌고 취준생이 되면서 서로 연락이 두절 되었다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겨울 산행을 하며 지난 10년을 이야기했었다. 어떻게 지냈는지, 결혼은 했는지. 겨울 산의 매서운 추위도 우리 사이를 얼어붙게 하지 못했다. 어느덧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겨울 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진정으로 겨울 산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한동안 말없이 감상하다가 우리는 햇볕에 반짝이는 겨울 산을 바라보며 “야호” 대신 “반갑다 친구야”를 외쳤다.

여전히 저주파는 내 발목을 찌릿찌릿 지저대고 있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정신이 온전히 3년 전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사진에는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정복자처럼 서 있는 나. 그리고 옆에

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방긋 웃고 있는 친구만이 있었다. 웬지 몽클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사진 속 아름다운 배경처럼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이기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3년 전 그날도 나는 하산하는 길에 발을 헛디더 발목을 빼었다. 졸업 후 10여 년 동안 산행을 안 하다시피 살다 갑자기 무리하게 산을 올랐고, 내려오다 긴장이 풀렸던 모양이다. 산 중턱에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참 난감했다. 갑자기 추위는 엄습해오고 날은 어두워져만 갔다. 빨리 내려가야만 했다. 다급해진 나는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마저 생겼었다. 그런데 친구에게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한마디를 듣게 된다. “나는 삶이 힘들거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산에 올라간다. 산에 올라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산을 여행하는 사람과 산을 구경하는 사람이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길을 잃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불행해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고 누군가 어떻게 해주지만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니? 그렇다면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보다는 여행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난 지금까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구경만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쩌다 큰일이라도 나면 금방 남의

탓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 나타나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삶이었다.

친구의 말에 마음을 고쳐먹고 발을 절뚝이며 무사히 산에서 내려왔었다. 산 입구로 다시 오게 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따끈한 국밥 한 그릇에 얼굴은 별경게 붉어졌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줄었다. 마음먹은 일들이 잘 안되더라도 나에게 부족한 점을 찾으려 노력해보았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이나의 의지를 녹슬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마흔이 훌쩍 넘은 지금 타인의 삶을 동경하며 삶의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라도 다시 담금질해야 할 것만 같았다. 어쩌면 그 친구도 구경꾼이 되어있지 않을까? 언제나 내 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준 친구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친구의 삶 속에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배경이 되어주고 싶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친구야 우리 겨울 산 같이 가지 않을래? 힘들면 그 아래서 국밥 한 그릇 어때?” 답장이 왔다. “우리 언제 갈까?” 어느새 난 다시 삶의 여행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 JTBC '착하게 살자' 제작발표회



JTBC '착하게 살자'는 기획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의 협조 아래 촬영된 국내 최초의 사법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만큼, 담장 안 세계를 얼마나 리얼하게 담아냈을지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다. 첫 방송을 하루 앞둔 1월 18일 '착하게 살자' 제작발표회 현장을 찾았다.



경찰과 법조인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실제 여주교도소에서 6일간 진행됐다. 덕분에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 수감 후의 생활까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제와 가깝게 담아낼 수 있었다.

윤중용 교위(법무부 교정기획과)는 “교정 행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교정 행정과 교정 공무원들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착하게 살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쉽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교정의 왜곡된 모습을 바로잡고 제대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요? 사법 시스템, 교정시설 안에서의 생활, 교도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정을 홍보하는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 협조 아래 탄생한 진짜 교도소 이야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교도소 생활을 리얼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종영했다. 그동안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교도소가 등장했지만, 어디까지나 극적인 사건을 위한 배경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그 모습마저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거나,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그려졌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역시 장르적 특성상 실제와 거리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더러 있었다. 하지만 수용자와 교도관이 중심이 되어 담장 안 이야기를 편견 없이 담아냈다는 것에 연일 호평이 이어졌다. 비록 그것이 가상의 이야기일지라도 말이다. JTBC '착하게 살자'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착하게 살자'는 국내 최초의 사법 리얼리티를 표방한다. 시나리오를 토대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출연진들의 시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겪게 되는 모든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법무부의 협조'는 기존에 없었던 '사법 리얼리티'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소다. 모든 촬영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전·현직



###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는 메시지 잘 전달되길

1월 18일 오후 2시 상암동에 위치한 JTBC 사옥, 연출을 맡은 제영재, 김민중 PD와 김보성, 박진형, 돈스파이크, 유병재, 김진우, 권현빈 등 6명의 출연진(김종민은 해외 촬영 관계로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JTBC 조수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착하게 살자'의 제작발표회가 시작되었다.

가장 많은 질문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관한 질문이었다.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을 '예능'이라는 포맷에 담아서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에 '착하게 살자'의 연출을 맡은 제영재 PD는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 보여주고 '절대 죄짓고 살지 말자. 착하게 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면서 기획 의도를 밝혔다.

“교도소라는 공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많이 다뤄졌던 소재인데 예능에서는 처음 접근하는 것이니만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워낙 큰 사건이 많았던 만큼, 구속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사법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 역시 그랬고 그 과정을 리얼하게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공동 연출을 맡은 김민중 PD는 “착하게 살자는 예능 범주가 아니라 '사법 리얼리티'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교도소 특성 상 많은 인원의 제작진들이 투입이 되지 못해 기존 인원의 1/10 정도로 진행했고, 시험카메라를 장치해 리얼한 생활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죄를 지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정공무원들의 모습 역시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자’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리얼하게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대중매체 속 교도소와 실체가 어떻게 다른지 상세하게 짚어줌으로써 교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바로 잡는 역할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두 명의 PD가 밝힌 ‘착하게 살자’의 기획의도다.



### 범죄 미화 NO! 엄숙한 분위기에서 촬영

‘착하게 살자’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한 층 높아졌다. 동시에 ‘예능’이라는 포맷 안에서 ‘교도소’라는 소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자칫 범죄 미화나 희화화로 흐를 수 있다는 걱정이다. 제작발표에서 제영재 PD는 “범죄 미화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작진 역시 고민이 많았다”면서 미화나 희화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촬영 역시 기존 예능과 달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 교정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인위적으로 연출하는 웃음이 아닌 상황이 주는 아이러니와 웃음이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출연자 유병제도 출연 섭의를 받고 가장 걱정했던 것이 범죄의 미화였다면서 “두 가지 정도 스스로에 대한 룰을 정해놓고 촬영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웃기려고 하지 말자’는 다짐이었어요. 예능으로 편성됐지만 코미디 쇼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만들려는 노력을 배제했죠.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실제 수감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죄를 지었지만 좋은 분이네’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범죄 미화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담담하게 진행했습니다.”

### 출연진들이 밝힌 6일간의 수감 생활

‘출연자들은 2달 전 경험한 6일간의 수감생활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각자가 느낀 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였다.

“의리!”를 외치며 무대에 오른 김보성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범 죄율이 감소하여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했다”면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수감 생활을 시작해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착하게 살아야 갇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종민은 해외 촬영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의리로 이해해 달라.”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처음 섭의를 받고 당황스럽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다녀오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면서 “절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강조해 수감 생활의 고생을 짐작

하게 했다. 김진우 역시 “너무 힘든 생활이었다”면서 “지금까지도 착하게 살았지만 더욱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모두를 당황하게 했던 ‘개방된 화장실’에도 바로 적응했던 권현빈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간혀 있다는 상황 그 자체’였다. “촬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 막막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번 촬영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안의 ‘바른생활남’으로 불렸다는 박건형은 “항상 궁금한 공간이었는데 실제 교도소에 다녀온 제 솔직한 심정은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연속이었어요. 예능이고 촬영인데도 순간순간 느껴지는 ‘날 것’의 감정이 있었죠. ‘착하게 살자’의 주인공은 7명의 출연진이 아니라 ‘교도소’라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촬영하는 내내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보시는 분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할 낯선 공간인 교도소가 주인공이 되는 국내 최초 사법리얼리티 ‘착하게 살자’는 2018년 1월 19일 JTBC를 통해 첫 방영되었다.



Mini Interview

## 제영재 & 김민종 PD

### 제영재 PD

경비교도대 출신으로 서울구치소에서 2년간 근무했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죠. 미디어를 통해 그려지는 교도소, 교도관의 모습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번 프로그램은 여주 교도소에서 촬영했는데, 제가 근무할 때와는 달리 시스템이 첨단화되어 있더라고요. 교정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도소 안의 생활은 어떠한지를 가감 없이 보여줌으로써 ‘착하게 살자’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종 PD

프로그램을 위해 교도소 답사를 했는데,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에 비해 교도관들의 노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에 교도관이 등장하긴 하지만, 주인공이 수감자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도관은 악역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주 교도소 직원 분들을 비롯해 촬영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법무부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회복적 사법 관점의 소년수형자 교정처우 (上)



## I. 서론

“한 나라의 장래를 미리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청소년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비행소년과 범죄소년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 관리하느냐이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잔인한 범죄 가해자들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거친 경우가 적지 않아 교정행정에 대한 비판이 자주 도마에 오르게 된다.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전이되는 정도는 그 사회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중요 변수이다. 아직 심신이 완성되지 않은 성장기의 소년들은 그만큼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더 심각한 성인범죄자로 전이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와 사회 통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소년사법은 응보적 사법 관점으로부터 회복적 사법으로의 일대 전환을 이루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관심은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이같은 회복적 사법은 오늘날 범죄 문제에서 더 나아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회복적 학교생활, 회복적 도시 운동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같이 형사정책의 조용한 혁명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을 살펴보고, 회복적 관점에서의 소년수형자 교정처우를 소개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 II. 회복적 사법의 출현과 전개

### 1. 회복적 사법의 시작

회복적 사법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도시 엘미라(Elmira)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마을 여러 집을 파손하고 절도한 두 명의 십대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지역 교정활동을 해왔던 Mark Yantzi와 동료 Dave Worth는 담당 재판관을 찾아가 용의자들을 데리고 피해자들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게 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였다. 당시로는 선례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한 달 시한을 조건으로 건의안을 받아들였다. 그 두 소년 용의자들은 마크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소년들은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고통을 들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사를 간 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이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둘은 집을 고쳐주거나 현금배상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몇 집은 이들이 찾아와 참회한 것만으로도 용서해 주었고, 그 두 청소년은 다시금 마을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법정 심리보다는 가해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선도와 예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는 오늘날 서구는 물론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정신과 실천은 캐나다와 호주 등 원시부족사회를 비롯하여 인류역사상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1989년 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에 근간한 접근을 법제화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고, 많은 의미 있는 실험의 결과들을 양산해 왔다. UN에서도 2000년 이후로 회원 국가들에게 회복적 정의 접근을 권장하고 있으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운영 핸드북」(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s)을 발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정치적 접근으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적용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 Reconciliation Commission)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0여개 국가에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sup>1)</sup>



1) 'Restorative Justice'를 한글로 옮길 때 'Justice'를 정의 혹은 사법이라고 번역한다. 회복적 정의가 형사사법 분야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 학교, 조직·공동체, 마을·도시로 확산되면서 회복적 정의라는 광범위한 사회 분야를 아우르거나 철학적, 사상적 관점에서 쓰일 때는 정의로 표현하며 사법(司法) 분야에 국한할 때는 회복적 사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 2. 회복적 정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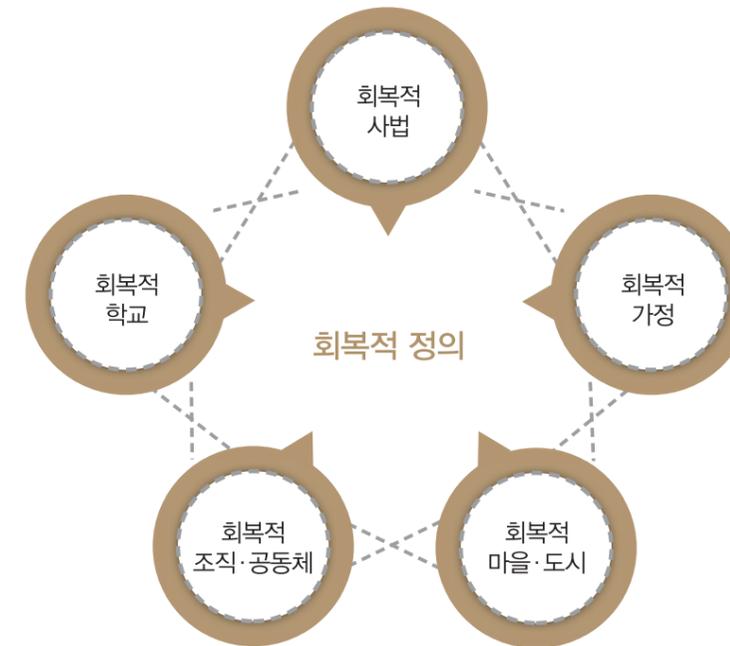
회복적 정의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상식화된 응보적 정의와 다른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벌이나 비난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에 더 궁극적 목표를 갖는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영향을 직시하도록 돕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지고, 관계회복을 목표로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때 진정한 정의가 이뤄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 자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잘못이 양산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잘못이 만들어 낸 책임은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행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정의의 핵심가치로 여긴다. 정의의 과정을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와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만남과 대화, 참여를 중시한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는 피해회복, 자발적 책임,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루는 정의를 의미한다.

응보적 정의	구분	회복적 정의
가해자 처벌	목표	피해 회복
강제적 책임의 수행	방식	자발적 책임의 기회
처벌권자/처벌기관	주체	당사자/공동체



회복적 정의는 회복의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이해한다. 일차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과 잘못을 한 사람의 자발적 책임의 회복을 가장 중요시 한다. 그러나 이런 갈등 당사자들의 회복은 공동체의 역할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요소다. 따라서 관계회복을 목표로 삼고 공동체의 역할이 회복되려면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문제해결 과정과 회복과정이 필수적 요소다. 회복적 정의가 회복하고자 하는 정의의 방향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정의가 아니라, 어떤 잘못으로 가장 큰 영향과 피해를 경험하는 당사자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참여를 포함할 때 가능하다. 사회적으로도 처벌기관이나 가해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관이나 비용은 증가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이나 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 불균형이 줄어들고 개인화되는 문제해결 방식이 공동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 3. 회복적 정의 실천 영역

회복적 정의 최초의 실험은 사법영역에서 시작되었고 '회복적 사법'이란 고유한 연구와 실천의 영역을 확보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회복적 정의 운동이 사법을 넘어 다양한 사회분야와 일상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학교 생활지도의 근본적 틀을 변화시키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학부모의 변화를 통한 가정의 '회복적 가정교육',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 만들기에 적용될 수 있는 '회복적 마을·도시', 직장이나 기관의 갈등을 평화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회복적 조직·공동체' 등으로 그 실천영역이 확산되고 있다.<sup>2)</sup>

### ①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범죄를 가해자의 처리에 초점을 맞춰 그 범죄행위에 적합하고 공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사법으로 이해해왔지만,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강제적 처벌보다는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를 중요한 정의의 요소로 본다.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범죄를 법에 대한 위반행위로만 보기보다는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사회)에 가해진 피해행위로 간주하여, 상호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로 참여하고, 공동체(사회)는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양형서클, 가족간접의회(FGC), 교정시설 출소 전 준비모임 등이 있다.

2)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 원장 이재영) 발간자료 참조

## ② 회복적 학교(Restorative School)

가정과 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폭력과 왕따에 물든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갈수록 학교의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체벌금지 이후 대안적인 생활지도의 개념이나 방법이 생겨나지 못하면서 현실은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더 큰 혼란을 주는 면도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생활지도에 투영하여 교실의 존중의 문화를 높이고 자발적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생활지도의 패러다임과 실천을 의미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넘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 성찰문, 존중의 약속 만들기, 신뢰서클, 문제해결 서클,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회복적 접근이 학급과 학교 운영 전반에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육을 받고 학교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학교가 회복적 학교다.

## ③ 회복적 조직·공동체(Restorative Organization·Community)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조직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고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해 좀 더 유기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조직발전의 기초로 삼는 것이 회복적 조직이나 공동체의 특성이다. 회사, 기관, NGO, 교회, 병원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조직이 좀 더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과 약속이 이뤄져야 하고,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참여적인 공동체 대화의 장(서클)이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축적될 때 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회복적 조직·공동체의 비전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이런 존중의 가치와 방향에 동의하고 함께 참여할 때 현실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④ 회복적 마을·도시(Restorative City)

회복적 정의의 원칙과 가치를 지역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마을이나 도시를 회복적 마을·도시라고 한다. 시청, 교육청, 법원, 경찰서, 청소년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회복적 정의 관련 기관이 세워지고, 그 센터를 통해 회복적 정의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와 조정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학교, 사법,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이웃 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문화적 접근이 일어나는 곳이 회복적 도시의 모습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영국 헐시티 사례에서 보듯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회복적 도시의 시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름 마을과 도시의 평화와 안전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 4. 한국에서의 회복적 정의 운동의 전개

한국에서 회복적 정의 연구는 일찍이 1990년대 사회복지학의 교정복지 영역에서 시작되었는데 안양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공감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이 최초의 시도이다. 그 후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올라가면서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연구와 실천들이 회복적 사법 영역에서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민간영역에서도 한국아나뱃트센터와 갈등해결센터와 같은 NGO에 의해 회복적 정의 실천 운동이 시작되었다.

2000년 중반 민간영역의 회복적 정의 운동과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몇 년간의 시범사업의 결과로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부에 「화해권고제도」**가 시작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사법영역에서는 그 외에도 경찰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검찰의 형사조정제도**, 법원의 형사화해제도 등을 통해 회복적 정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회복적 정의 운동이 학교의 생활교육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학교들과 교육청 등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훈련 및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교사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사법과 학교 영역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은 서울00병원 회복적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등 직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고, 남양주시에 '회복적 아파트' 만들기 등 아직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몇몇 마을과 경남 김해 등 도시에서 회복적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회복적 정의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회복적 도시의 비전이 궁극적으로 도시의 교육행정 및 사법영역을 포함하여 확산되어 회복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큰 그림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 다음 호에서는 회복적 교정 활동 사례와 소년수형자에 대한 회복적 처우 방안을 소개합니다.



# 지상강좌 I

## 헌법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다. 매호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헌법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 1. 개인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에라도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분,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④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 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衡量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대판 2016.8.17, 2014다235080).

②, ③, ④, ⑤ 대판 2016.8.17, 2014다235080

정답 ①

### 2.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무상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하에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 번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비록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 ④ 구 형사소송법(2015. 7. 31. 법률 제13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경우 제 410조에 의하여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이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 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부분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판 2016.12.27, 2014두46850).

①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실무상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 두번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측정방법을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헌재 1997.3.27, 96헌가11).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9.26, 2013도7718).

④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 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2.6.27, 2011헌가36).

⑤ 이 사건 녹음조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11.24, 2014헌바401).

정답 ③

## 형사소송법

## 지상강좌 II

형사소송법이란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한 법률체계를 일컫는다. 격월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형사소송법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 1. 합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명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 ㉢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합정수사로 볼 수 없다.
- ㉤ 위법한 합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 X / ㉠,㉡,㉢,㉤ : O

X : ㉡ 위법한 합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도1247)

O : ㉠ 대법원 2006도2339 ㉢ 대법원 2008도7362 ㉣ 대법원 2007도1903 ㉤ 대법원 2007도4532

정답 ㉡

## 2.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96도1922 전합) 따라서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

① 대법원 2007도4977 ② 대법원 99도3784 ③ 대법원 2008도7462

정답 ④

## 3.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44조의2 제1항) 즉, 고지하면 즉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고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제221조 제1항)

②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8213)

③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3359)

④ 대법원 2015도16586

정답 ④

#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FEBRUARY 2018 Vol. 501

##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1월 22일 차관회의실에서는 차관(위원장)과 교정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의 내부위원과 5인의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가석방 심사 대상은 총 600명으로 이중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원은 1월 30일에 가석방되었다.

## 교정공무원 6급 이하 인사 시행

지난 1월 8일 6급 이하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시행되었다. 인사 대상자는 총 842명으로 이 중 143명이 9급 공채로 신규 임용되었고, 342명(6급 30명, 7급 9명, 8급 221명)이 승진하였으며, 357명의 전보가 결정되었다.

## 전문대학 위탁 교육과정 교육생 학위 취득

지난 1월 11일 순천교도소에서 전문대학 위탁 교육과정 교육생의 학위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날 18명이 호텔외식조리과의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인원을 포함하여 청암대학 호텔외식조리과 학위 취득자는 총 311명이다. 수여식에는 순천교도소장, 청암대 총장, 학위취득자와 가족, 교정위원, 소속 직원이 참석하였다.



## 교정 작품 전시회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지난 1월 22일 대전교도소 회의실에서는 각 기관 작품 제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정 작품 전시회 업무담당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교정 작품 전시회 주요 출품 기관 업무 담당자로 교정본부에서 3인, 지방교정청에서 6인, 소속기관에서 20인이 참석하였다.

## 홍익대학교 교정제복 연구진 교정시설 방문 및 업무협의

지난 1월 16일 홍익대학교 교정제복 연구진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업무협의를 하였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실시되었으며 교정본부의 사무관 권태성 등 2인과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최철용 교수 등 4인이 참석하여 '제복 개선 관련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1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3~4월 중 시안을 확정하여 5월에는 새로운 제복을 시범 착용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2018년도 교화사업 업무협의

지난 1월 18일 2018년도 교화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회의를 위해 교정본부에서는 교정본부장, 교정·보안정책담당, 각 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교정위원중앙협의회에서는 박흥섭 중앙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총 14인이 참석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신규 교화사업을 발굴하고 교화프로그램 지원 협의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 심리치료센터 개원식 개최

지난 1월 16일과 17일 안양 심리치료센터와 목포 심리치료센터의 개원식이 있었다. 심리치료센터의 추가 설치에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원식에서는 현판 제막, 경과보고, 직원과 수용자의 인터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직원 교육 및 제도도입 일정 조율 등이 진행되었다.



## 수용자 심리상담 강화를 위한 한국상담심리학회와의 업무교류 회의

지난 1월 16일 법무부 심리치료과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의 업무교류 회의가 진행되었다. 업무교류는 수용자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전문가의 교정기관 상담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교정기관에 우수한 외부 상담전문가 인력 제공과 법무연수원 '심리치료 전문상담 인력 양성과정' 지원 등이 있었다.

## 미국 교정시설 건축 동향과 국내 교정시설 발전과제 보고

지난 2월 2일 서울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교정시설의 건축 동향과 국내 교정시설의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교정·보안정책담당, 서울지방교정청장, 본부의 각 과장, 시설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교정시설의 건축 방향과 우수 사례·수용시설 원형모델 개발의 중요성·국내 교정시설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서지선

#### 2018년도 서울형 교정연합회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월 16일 서울형 교정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구에 힘쓰고 교정연합회 활성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교정연합회의 교회사업 방안 등을 토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였다.

### 서울구치소 / 교사 김형석

#### 연말 직원표창장 전수 및 수여

서울구치소는 12월 28일 직원표창장 전수 및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 적극적으로 교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및 수여식을 실시하였으며, 수상 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2018년 무술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 제52대 오홍균 소장 취임식 개최

안양교도소는 1월 2일 제52대 오홍균 안양교도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오홍균 신임소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수용질서 확립과 교정사고 예방에 힘써 청렴한 교정공무원의 기본을 지키자"는 당부를 전하였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 청소년 봉사 활동과 연계한 시설 참관 실시

수원구치소는 1월 18일, 19일 이틀간 직원 자녀 등 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구내외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 준법 교육, 구치소 내외의 교정시설을 견학하였다. 또, 주차장 및 민원실, 시설 외곽을 청소하는 등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제광석

#### 드라마 '투깝스' 촬영 협조

서울동부구치소는 12월 18일부터 나흘간 MBC 월화드라마 '투깝스'의 촬영을 위해 (구)성동구치소의 구 내외를 촬영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근무하는 교도관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인천구치소 / 교도 강호철

#### 4분기 인천지구 법무행정협의회 개최

인천구치소는 12월 27일 '2017년 4분기 인천지구 법무행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상훈 인천지방법경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행정 유관기관장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기관별 업무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고 구내시설 참관과 오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오정룡

#### 격무 부서 직원 격려 간담회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새해를 맞이하여 직무에 헌신하고 있는 보안과 조사팀 등 '격무 보직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정현장의 일선에서 고된 업무에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수행 중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 4/4분기 장학금 지급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과 송산면에 소재한 6개 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의 학생에게 2017년 4/4분기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송산고등학교 강미래 학생은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였다.



수원구치소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사)이레복지선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교도소는 1월 18일 사단법인 이레복지선교회와 출소자·출소예정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가족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출소자, 건강 악화로 보호자 없이 긴급 출소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제50대 김도형 여주교도소장 취임

여주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제50대 김도형 여주교도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김도형 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직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직원 상호 간 서로 마음을 열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박진

#### '기생충 박사 서민' 초청 특별강연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11일, 기생충 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단국대 서민 교수를 초청해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기생충에 대한 편견과 올바른 이해에 대한 것으로 언론에 교도관이 그릇되게 묘사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구

####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교도소는 12월 21일 외부정문 앞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춘천교도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선진 교정행정 실현에 앞장 설 예정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NEWS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제36대 신동윤 원주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원주교도소는 1월 2일, 제36대 신동윤 원주교도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신동윤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 기관운영 목표를 '자랑스러운 직장, 존경받는 교도관'으로 하여 직원들이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직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강릉교도소 / 교감 김이수

#### 자장면 나눔 행사 실시

강릉교도소는 지난 12월 12일 연말을 맞아 수용자들이 따뜻한 세상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릉지역 중화요리 음식 봉사단체인 '일우회'와 불교 교정위원들과 함께 자장면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상수

#### 대구지방교정청 2018년 시무식 개최

1월 2일 대구지방교정청은 시무식을 가졌다. 새로 전입해 온 과장 인사를 경해 실시한 이번 시무식에서 김명철 청장은 "새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엄정한 수용관리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수용자 인권보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의 날 행사 실시

1월 31일 대구교도소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문화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보안과 여성팀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단한 식사와 영화관람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의 날 행사는 직원들에게 음주 위주의 회식문화 대신 심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간 소통을 통한 사기 증진을 위해 실시되었다.

###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 제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12월 21일 부산구치소는 구내 직원 교육실에서 출

###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 제9대 영월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영월교도소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현기 제9대 영월교도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민현기 소장은 인천구치소 부소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민현기 소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근무를 통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 동절기 화재대비 소방훈련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월 24일 동절기 화재대비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동절기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기관 내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화재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초기 진화를 통해 대형화재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소예정자 12명, 외부기업체 7곳, 유관기관 4곳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제6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김정선 부산구치소 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김남규

#### 한가위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1월 1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터 가는 날' 행사를 시행하였다. 이 행사는 매달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이 관내 소재한 청송군 진보면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일상용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행사로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창원교도소 / 교사 박혜빈

#### 정부 국정철학 공유 및 확산 교육 실시

1월 10일 창원교도소는 청사 직원 교육실에서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부 국정철학 공유 및 확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4가지의 국정과제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 소망교도소 / 배현승

#### 신년업무보고 실시

소망교도소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총무과 등 7개 부서 자체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각 부서는 2017년 업무 성과분석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 한 해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 NEWS

### 부산교도소 / 교사 강민승

#### 청렴과 함께하는 문화의 날

12월 27일 부산교도소는 직원들과 함께 구포 만세역사 테마거리를 찾았다. 1919년 3월 당시 1,200여 명이 모여 부산 최대의 항일 운동을 벌인 역사현장에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청렴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청렴한 공직문화의 생활화에 대한 또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생과 사를 가르는 4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1월 4일 포항교도소는 한파로 인한 심정지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포항교도소는 지난해 교정시설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성명환 소장은 "심폐소생술은 수용자와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제52대 김태수 진주교도소장 취임

1월 2일 진주교도소는 제52대 김태수 소장의 취임

## 대구지방교정청

식을 가졌다. 김태수 신임 소장은 “법령에 근거한 형 집행과 함께 외부와의 합리적인 소통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 속의 교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구치소 / 교도 광명제

####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12월 4일 대구구치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시간에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 발생 현황,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구치소는 앞으로도 성폭력, 성희롱, 가정 폭력 등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 2018년 상반기 직업훈련생 오리엔테이션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3일 신임 직업훈련생 39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직업훈련생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다. 상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직업훈련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연마·인성 함양 등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통한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안동교도소 / 교도 양승명

####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 위문 실시

안동교도소는 1월 4일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찾아가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 활동은 직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추진되었으며, 상리3리 마을의 불우이웃 3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새해를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다.



대구지방교정청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유성

#### 제38대 서수원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월 2일 제38대 서수원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서수원 소장은 취임사에서 “역대 기관장을 비롯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가정 및 사회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교정공무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차석호

#### 신규 임용자 환영식 개최

1월 8일 울산구치소는 2018년 신규공무원 임용식을 가졌다. 정창현 울산구치소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인재들이 만큼 열정을 가지고 개인의 성취는 물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 진보중학교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2월 28일 진보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적 우수 학생 1명과 효행 학생 1명에게 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6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매달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연

#### 통! 통! 통! 소통데이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1월 11일 전용희 소장 및 각 부서에서 선정된 10명의 직원과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통! 통! 통! 소통데이를 개최하였다. 기관장과 직원 사이에 매월 1회 이상 마련되는 이 시간에는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고충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펼쳐진다.



대구교도소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 제43대 이경우 경주교도소장 취임

경주교도소는 1월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3대 이경우 경주교도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경우 소장은 취임사에서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수용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 수용자 응급처치 교육 실시

통영구치소는 12월 19일, 20일 양일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교정시설 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구조 할 수 있는 구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 밀양구치소 / 교사 김진환

####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교실 실시

밀양구치소는 밀양중학교 재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실을 실시하였다. 직업체험교실에서는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 보호장비 체험, 시설 참관 등을 통해 교정시설의 의미 및 교도관의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 제5대 노현태 상주교도소장 취임

상주교도소는 1월 2일 제5대 노현태 소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노현태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화합과 소통,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 자기 계발에 최선의 노력, 엄정한 수용관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강조하였다.



김천소년교도소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 NEWS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형석

#### 새해맞이 청사 주변 청소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12월 29일 새해맞이 청사 주변 쓰레기 수거와 정리정돈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소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청사 주변 대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모습에 직원 모두는 보람을 느끼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서로 기원하였다.

### 대전교도소 / 교위 하봉문

####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 봉사동아리 ‘희망세상’은 1월 6일 대전시 대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해맞이 무료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희망세상’ 봉사동아리는 평소 동구 복지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연말 동구청장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 청주교도소 / 교사 최진영

#### 2018년 직업훈련생 입소식

청주교도소는 1월 8일 건축도장 등 11개 공과 198명의 ‘2018년 직업훈련생 입소식’을 실시하였다. 청주교도소는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 및 재범방지와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 환경 개선, 교육 기저재 업그레이드, 자격증 취득 등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힘쓸 계획이다.

### 천안교도소 / 교사 이희성

#### 신년 힐링 음악회 개최

천안교도소는 1월 15일 수용자의 심성순화 및 교정교화를 위해 ‘신년 힐링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조이스 앙상블의 초청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동심초’ 등 가곡, 가요, 오페라 연주 등 정성과 열정을 불태워 높은 무대 수준을 선보였다. 특히 ‘내



공주교도소

2018. FEBRUARY

## NEWS

어머니’와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 2018년도 신규 임용식·승진 임용식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8일 2018년도 신규·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임용식을 통해 10명의 신규 직원들이 직원들과 함께 첫인사를 나누며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딛게 되었다. 주정숙 소장은 직원들에게 ‘뚜렷한 목표 설정을 통한 자기 계발로 크게 성장해 줄 것’과 ‘직원 간의 소통과 단합’을 당부하였다.

### 공주교도소 / 교위 김중욱

#### 공주경찰서 직원 자녀 참관 실시

공주교도소는 1월 12일 공주경찰서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엄마, 아빠 직장체험 및 지역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주교도소를 방문한 학생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기관홍보 및 설명, 기념촬영, 구내시설 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 2018년도 시무식 개최

1월 2일 충주구치소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교정본부장의 신년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윤창식 소장은 ‘우리 개개인이 변화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며 개인의 역량개발을 당부하였다.

###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 제41대 노용준 홍성교도소장 취임

홍성교도소 제41대 소장인 노용준 서기관이 부임하였다. 노용준 소장은 취임사에서 ‘隨處作主 立處皆眞(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임제선사의 가르침을 들며 ‘주인의식을 갖고 직원 상호 간 소통과



충주구치소

공감을 통해 화합·단결하는 홍성교도소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 직원 스트레스 측정의 날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12월 1일 직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스트레스 측정의 날을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우리소 심리상담 직원인 염석현 교사가 스트레스, 혈관 건강도, 불면증 치료 등 다양한 테라피를 통하여 직원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 서산지소, 송년의 밤 개최

홍성교도소서산지소는 12월 20일 연말을 맞이하여 송년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 한 해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색소폰 및 기타연주, 각종 퀴즈대회, 행운권 추첨 등으로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 책 속에서 보석 찾기 교화프로그램 실시

대전교도소는 수용자에게 노트를 지급하고 책 속의 명언이나 감동적인 말을 매일 1문장 이상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된 우수 소감문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분기별 포상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천안개방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최규철

#### 광주지방교정청 산하기관 보안과장 회의

광주지방교정청은 1월 19일 산하기관 보안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교정시설 수용자 간 폭행 실태와 근절방안, 기동순찰팀(CRPT) 활동 강화 방안, 보호장비 사용 시 인권침해 우려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광주교도소 / 교사 유병철

#### 민원인을 위한 제설·시설물 관리

광주교도소는 1월 9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자 방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설작업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다. 제설작업에 참여한 직원은 "광주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걱정되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광주교도소를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 전주교도소 / 교사 김용희

#### '사랑의 헌혈' 실천

전주교도소는 1월 15일 새해를 맞아 혈액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펼쳤다. 구지서 소장은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전주교도소의 헌혈 행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였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 순천교도소 / 교사 방상용

#### 제14회 청암대학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순천교도소는 1월 11일 '2017학년도 청암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 위탁교육장 호텔외식조리과 제14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김춘오 소장은 "앞으로도 수형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출소 후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 목포교도소 / 교사 이정균

####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참관 실시

목포교도소는 1월 16일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정은주 등 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기관 현황 시청에 이어 심리치료센터 업무 설명, 수용동 참관, 대강당, 대운동장을 거쳐 민원봉사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용자 처우현장을 직접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 군산시 청소년 자치연구소 참관 실시

1월 13일 군산시 청소년 자치연구소 교사와 학생 8명은 군산교도소를 참관하였다. 이날 참관은 변화하는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교도관 직업에 대한 진로교육 및 범질서 체험 활동을 진행하여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참관단은 수용자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발전하는 선진 교정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 전입자와의 브런치 실시

1월 8일 제주교도소는 전입자들과 브런치 시간을 가졌다. 신규직원 및 승진자 등 전입 직원들은 이번 브런치 시간을 통해 낯선 제주도에서 근무해야 하는 심적 부담과 긴장을 해소하고, 제주교도소의 가족으로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제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 응급환자 출동훈련 실시

1월 16일 장흥교도소는 응급환자 출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고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진행

되었으며, 주·야간 훈련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였다. 정병환 소장은 "훈련을 실천처럼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하였다.

###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 제10대 김재익 소장 취임

1월 2일 해남교도소에 제10대 소장인 김재익 소장이 임명되었다. 김재익 소장은 2005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전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대전교도소 부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재익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엄정한 수용관리'를 강조하였다.

###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 사랑의 헌혈 나눔 실시

정읍교도소는 1월 15일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헌혈 나눔을 실시하였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1초의 찡그림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은 언제나 행복하다"라며 헌혈 후 소감을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이처럼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정읍교도소

## 교정공제회

### 2018년 시무식 개최

교정공제회는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권기훈 이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며, 각자가 맡은 역할을 넘어 1만 5천여 명의 공제회원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단체가 되어주기를 요청하였다.

## 국군교도소

### 수용자 직업훈련 입교식

국군교도소는 1월 29일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입교식을 실시하였다. 수용자들은 교도소장 및 직업훈련 교관, 교도관들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받으며 결의를 다졌다.



## 모범공무원인을 소개합니다



**수원교도소 교위 김재성**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

서신 업무 담당자로서 엄중 관리대상자 같은 특이 수용자 서신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월 평균 100건의 자비 구매 도서 접수 및 수용자 교화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



**대구교도소 교위 성경모**

**원활한 형 집행·교정사고 예방에 기여**

수용자 입실거부 185건, 싸움 사건 20건 등 465여 건을 조사 후 사안이 중대한 6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수용자 자살 사건 및 병사사건 처리 중에는 유가족의 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소 내 노후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교체하고 주 1회 물 절약 안내방송으로 절수효과를 거두었으며, 각 과에 온도계를 지급하며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다.

대구



**청주교도소 교위 김병덕**

**환경 정비·수용질서 확립에 기여**

구 내 환경업무를 통해 소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구매업무와 동시에 수용자의 각종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징벌수용동 근무 시 악의적으로 진정·처벌을 남발하는 수용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2013년부터 지속적인 결손가정 후원으로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대전



**순천교도소 교사 정종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

복지과 구입보조 근무자로 모든 일에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과중한 업무에도 동료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검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광주

# 준비하는 당신의 인생을

## 응원합니다!

월간 <교정> 2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가깝게는 오늘 하루, 멀게는 노후까지 삶을 준비하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동료의 계획을 보며 나의 계획을 점검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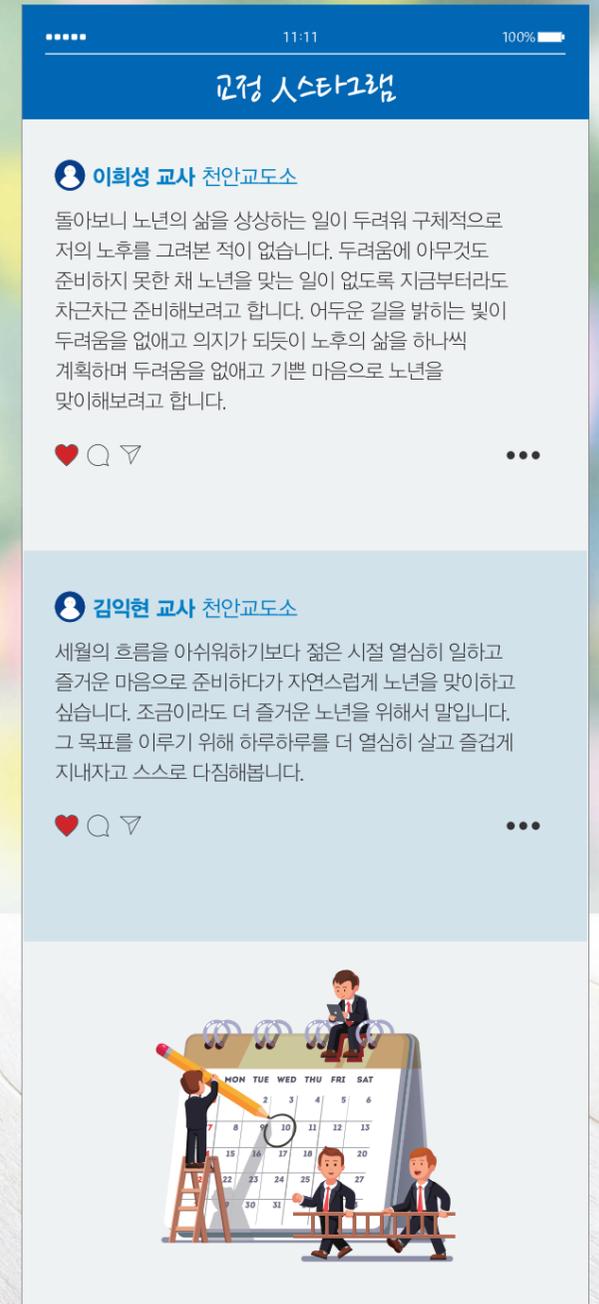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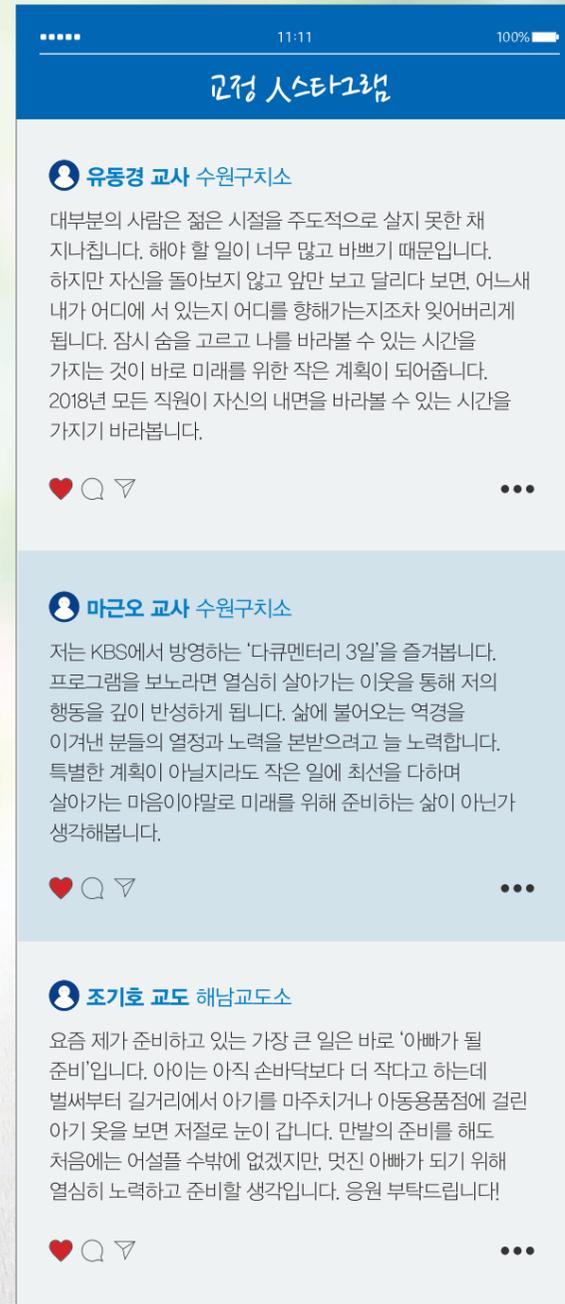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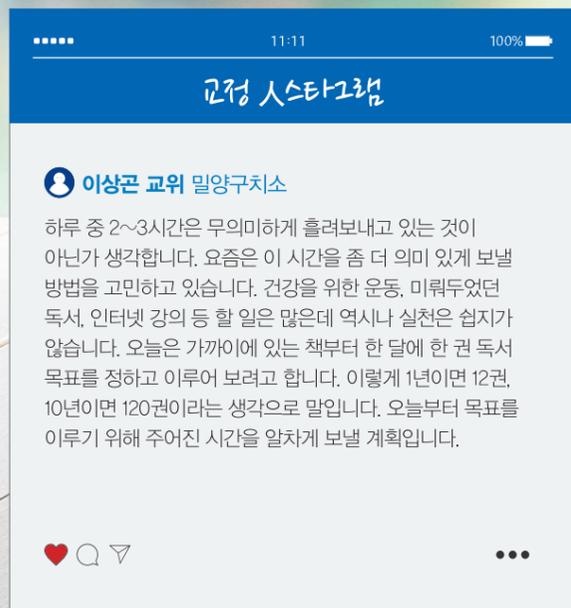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기프트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호 테마컬러는 'WHITE', 주제는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 이달의 공연

꽃샘추위에 외출이 두려운 2월, 반갑게도 완성도 높은 공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겨울의 마지막을 장식할 명작공연들을 만나보자.



### 리차드 3세

기간 : 2월 6일 ~ 3월 4일  
장소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차드 3세>가 연극으로 돌아온다. 영국 장미전쟁 시대에 불품 없는 외모와 달리 뛰어난 권모술수와 리더십으로 권력을 거머쥐었던 리차드 3세의 역에는 황정민이, 그의 친형 에드워드 4세에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활약한 정웅인이 캐스팅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년 만에 연극무대에 돌아온 황정민과 '대학생' 때부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연기하고 싶었다는 정웅인의 호흡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 안나 카레니나

기간 : 1월 10일 ~ 2월 25일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여러 번 영화로도 제작된 톨스토이의 명작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다. 누구나 사랑에 빠질 만큼 아름다운 안나 카레니나가 관습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열정적인 사랑에 눈을 뜨면서 그녀와 그녀 주변이 모두 변해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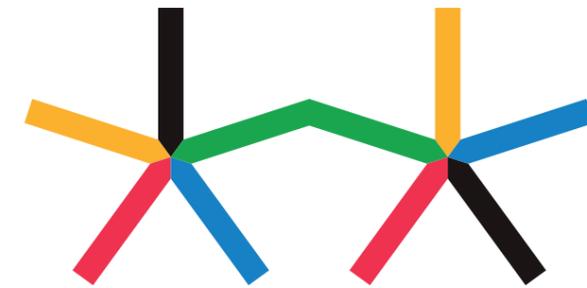


### 아리타의 풍경소리

기간 : 2월 21일  
장소 :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일본 도자기의 시조 '이삼평공'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의 연극이다. 미술과 문학, 연극을 하나의 공연으로 융합하는 일에 힘쓰는 극단 '자유세상'의 작품으로 소재의 독특함은 물론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무대라는 점에서 뜻깊은 공연이다.

##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3.9-3.18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http://www.PyeongChang2018.com)

# 월간 교정 독자 참여 마당에 응모하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너 1

## 교정 글마당



소설, 시, 수필은 물론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무엇이든 아래의 교정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달의 작품으로 선정되어 교정 글마당에 소개된 분께는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너 2

## 교정 인스타그램



'교정 인스타그램'에 예고되는 다음 호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짧은 글과 함께 아래의 교정 메일로 보내주세요.

교정 인스타그램 코너에 소개된 분들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1. 참여하고 싶은 글이나 사진(원본)을 준비한다.
2. 근무지, 소속, 직급, 이름을 적어 [correct2015@naver.com](mailto:correct2015@naver.com)으로 보낸다.
3.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다.